

# “대설·강풍 현장 민·관 협력 신속 지원”

금지사, 분야별 대책·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오전 도 재난 상황실에서 대책·강풍 대책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비상연락망 관리 등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해 농축수산 등 분야별 현장 지원을 신속히 하라”고 지시했다.

전남지역에는 17-18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17개 시·군에 대해 특보가 발효돼 24시간 최대 적설량이 무안 17.7cm를 최고로 영광 16.3cm, 장성 14.2cm 등 도내 평균 7.2cm의 눈이 내렸다.

현재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눈이 쌓여 3천917명의 제설 인력과 덤프 등 1천571대의 제설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만큼 적설과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 보강과 비닐하우스 지붕 눈 치우기 등으로 피해를 막고 대설에 따른 동해 피해 품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시·군과 유기적 협조로 국도·지방도 등 도내 모든 도로의 제설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월요일 출근길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안부를 확인하는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안전 점검 ▲양식어류 월동장 이동조치 ▲어선 입출항 통제, 결박, 대피 조치 ▲방파제, 해안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 출입통제 ▲제설 중점구간 집중관리를 통한 제설 ▲재난취약계층 1일 1회 안부 확인 및 24시간 응급진료 비상체계 구축 ▲재난문자 및 마을방송을 통한 도민 홍보 등 대설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내린 눈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얼어붙어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빙판길 미끄럼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며 “제설작업 시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말연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시, 자율차 시범지구 첫 평가 ‘우수’

국토부, 특장차 이용 차별성·실증데이터 수집 등 노력 인정

광주시는 18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며 앞으로 매년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광주시는 특장차를 이용한 차별성, 타 지역에서는 부족한 실증데이터 수집, 안전관리 프로세스 구축, 통신 인프라 실험검증 노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평동산단·수완지구 일원에서 무인저속특장차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했다. 올해 6월에는 빗그림 산단, 첨단2지구, 평동역-어등대로-영광로(14.2km) 구간을 추가 지정받았다.

추가 지정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2024년까지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 사업’을 통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이뤄진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광주센터포럼 10주년 기념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센터포럼 10주년 기념식’에서 조오섭 국회의원,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과 ‘성평등으로 빛나는 도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 51개 기업·기관 가족친화인증 통과

여성가족부 심사…정부·금융기관 239개 인센티브 제공

광주지역 51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광주시는 18일 “2022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신규인증 21개, 유효기간 연장 13개, 재인증 17개 등 총 51개 기업·기관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21곳이 신규 추가되면서 지역 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총 121곳에 달한다.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는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심사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기업·기관에는 이미지 개선, 이직률 감소, 근로자 직무몰입 증가 등의 효과를, 근로자는 삶의 질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직원 간 관계 증진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광주지역은 인증 초창기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인증을 획득했지만 현재 다수 중소기업들이 모·부성 관리보장 제도를 준수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발전시키면서 지역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은 중앙정부, 각 지자체, 금융기관이 부여하는 239개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광주시도 용역 가점,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무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경영 지원금을 추진해 가족친화의 날 정착과 가족휴가 지원 등 중소기업에 새로운 가족친화 문화정착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2023년부터 가족친화인증 심사항목에 가족돌봄 휴직·휴가 이용, 가족 여가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대체 지표가 신설된다”며 “지역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市, 타 지역 출신 장병 대상 ‘빛고을 투어’

광주시는 18일 “타 지역 출신 장병을 대상으로 최근 이들 간 빛고을 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병 빛고을 투어는 광주에서 복무하고 있는 타 지역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10년 6월부터 실시한 광주시 특수

시책이다.

투어는 전문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역사문화마을, 광주공영마루 국악상설공연,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탐방하고 참배하면서 광주권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31사단·제1전투비행단 등 타 지역 출신 장병 25명을 대상으로 국립5·18민주묘지, 소쇄원, 충장사 등 지역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내용을 진행됐다. /박선강기자

## 道, ‘바이씨’에서 전남 수산물 30% 할인

전남도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판매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물 ‘바이씨(BuySea)’에서 수산물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9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할인행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반영해 어촌계에서 생산하는 제철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할인 품목은 전복, 굴, 새꼬막, 김, 미역, 다시마, 낙지 등 전남 어촌계에서 직접 생산해 맛과 품질이 보장된 수산물 88개다. 시중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김현미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남 어촌계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한 수산물로 설 명절을 알차게 준비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할인 행사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씨(BuySea)’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이다. 2020년 11월부터 전남지역 어촌계 직거래망을 통해 운영해 수수료와 운영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어촌계와 소비자 간 직거래 판로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전남 우수 어촌계 30개소가 입점해 있다. /김재정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it's true

balanced

PERON

엑스페론

밸런스 라인